



정순찬, 평교수로도 인기 '짱'

서울대 경제학부강의 3과목 '수강 경쟁'

4년의 총장 임기를 마치고 경제학부 평교수로 돌아간 정순찬(사진 맨 왼쪽) 전 서울대 총장의 강의가 인기를 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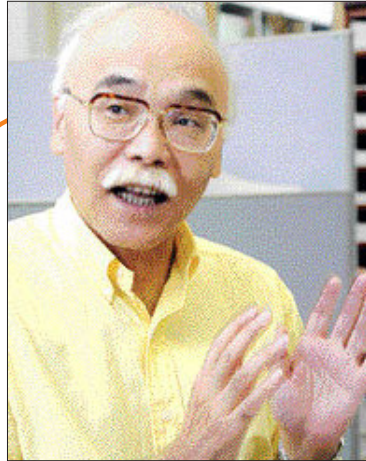
정 전 총장이 이번 2학기에 맡은 강의는 화폐금융론, 경제학 연습 2, 신입생세미나 등 3과목. 강의를 들으려는 수강생들로 일찌감치 정원이 꽂혔다.

학부 전공과목인 200명 정원의 대형 강의 '화폐금융론'은 이달 초 수강 신청이 시작되자마자 학생들이 몰려 순식간에 만원이 됐고, 경제학부 4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전공 과목 '경제학연습 2'도 강의 시간이 학생들이 끼리는 금요일 오후인데도 15명의 정원이 꽂힌 상태다.

신입생과 함께 토론하며 학문하는 기본 자세를 가르치는 '신입생 세미나'는 15명 정원에 48명이나 몰려 3대 1 이상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신입생 세미나' 과목은 정 전 총장이 e-메일 인터뷰를 통해 수업에 대한 열의와 관심 등을 직접 평가해 수강생을 선발했다.

정 전 총장의 강의가 이렇게 인기를 끄는 것은 그가 인간적인 면모를 갖춘 교육자로 정평이 나 있기 때문이라는 게 학생들의 전언이다.

총장 취임 전부터 명망으로 소문났던 데다 총장 재임시 쌓은 유명세가 더해진 점도 최고 인기 교수의 비결이다.



2006 한국문화체험 참가 광주 온 하 가 日 시즈오카대 부총장

“대학생 교류한·일 문화 이해 場 됐으면”

조선대-와세다대-시즈오카대 교류 위해 인솔 자원

25일까지 광양제철·낙안읍성·보성 차밭 등 둘러 봐

수사에 머물면서 한국어를 배우고 문화를 체험하게 된다. 조선대 학생 19명은 같은 프로그램으로 지난달 3주 동안 일본에 다녀온 바 있다.

하가 부총장은 “2002년부터 지속 돼오는 조선대-와세다대-시즈오카대 간 교류 프로그램이 더욱 공고해 나갈 바라는 의미에서 인솔을 자원했다”고 말했다. 지난해까지는 일본의 대학에서 한국어 등을 가르치는 한국인 교수가 학생들을 인솔했었다.

하 부총장은 “2002년부터 지속 돼오는 조선대-와세다대-시즈오카대 간 교류 프로그램이 더욱 공고해 나갈 바라는 의미에서 인솔을 자원했다”고 말했다. 지난해까지는 일본의 대학에서 한국어 등을 가르치는 한국인 교수가 학생들을 인솔했었다.



이와 함께 김 단장은 “전남분부가 산지조직으로부터 출하권을 위임받아 품목별로 특색화된 명품상품과 도 단위 연합브랜드를 개발하고 이를 앞세워 전라적인 마케팅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특히 규모화된 시장출하를 통해 전남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대관이 광복절 보신각 종 타종하는 이유는

독립운동가 송영근 선생 손자 “속스러워 안 밝혀”

“두 아들에 자부심 심어 주려 참석 결심했어”

트로트 가수 송대관(60)이 일제시대 독립운동에 직접 참여한 독립유공자 후손의 자격으로 15일 광복 61주년 기념 보신각 타종 행사에 참석한다.

그는 1919년 3월16일 전라북도 정읍군(현 정읍시) 태인면에서 장남을 이용해 태극기와 독립선언서 수천장을 등사해 장군들에게 나눠주는 등 독립운동에 힘쓴 독립운동가 송영근 선생의 손자다.

송대관은 13일 “내가 아닌 조상이 하신 일인데 인터뷰하기 속스럽다”며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 고모로부터 증조할아버지와 할아버지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만석꾼 집안 출신이었지만 송대관은 일제시대를 거치며 집안의 가세가 기울고 아버지의 사망으로 힘든 생활을 겪었다고 했다. 본인 스스로 “거지왕 자”라고 표현하며 너털웃음을 지었다.

송대관은 고향에서 열리는 3·1절 행사에 몇 번 참석하면서 올해 서울시로부터 3·1절 기념행사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조상이 하신 일이란 생각이 거절했다고 한다. 이번 광복절에 재차 제의를 받았을 때 참석을 결정하게 된 건 두 아들 덕택. 이제 장성해 결혼할 나이가 된, 미국에서 공부하는 아들에게 훌륭한 조상을 둔 자부심을 심어주고 싶었다는 것이다.



그는 “그간 형제들, 사촌들에게도 누가 되게 살았다”며 “내가 매번 방송 등에서 불쌍하게 산 얘기를 하나씩 형제, 사촌들이 고개를 못 들고 다니겠다고 하더라. 조상들이 일군 과업을 통해 이번 기회에 형제, 사촌들의 명예도 회복해주고 싶다”며 웃었다.

“가격 10% 더 받기 운동 박차”

김정오 전남농협 연합마케팅사업단장

“앞으로 전남농산물 공동판매사업의 광역화를 통해 ‘가격 10% 더받기 운동’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지난 8일 발매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 농협전남지역본부 ‘광역 농산물 연합마케팅사업단’ 김정오(48) 초대 단장이 전남농산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구상을 밝혔다.

김 단장은 “현재 나주·담양·장성·영광 등에 조직된 연합사업을 전남도내 전체로 확대하고, 관리 및 상품화 시설의 공동설치와 공동출하로 대형 유통업체를 동시에 공략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단장은 “전남분부가 산지조직으로부터 출하권을 위임받아 품목별로 특색화된 명품상품과 도 단위 연합브랜드를 개발하고 이를 앞세워 전라적인 마케팅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특히 규모화된 시장출하를 통해 전남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단장은 “전남분부가 산지조직으로부터 출하권을 위임받아 품목별로 특색화된 명품상품과 도 단위 연합브랜드를 개발하고 이를 앞세워 전라적인 마케팅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특히 규모화된 시장출하를 통해 전남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9세 조민효씨, 미 브라운대 교수 발탁

20대 미모의 여성이 미 명문대 교수로 발탁, 화제다.

조민효(여·29)씨는 서울대에 입학, 3년 만에 졸업한 뒤 미국으로 유학해 조지타운대 석사, 시카고대 박사 과정을 밟고 브라운대 조교수로 발탁됐다.

지난 96년 서울대에 입학한 뒤만 10년 만에 교수의 꿈을 이룬 것이다. 영재나 수재도 아니고 박사 과정을 중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지만 열심히 노력한 것이 좋은 결과를 낸 것 같다고 조씨는 말한다.

지난달 브라운대 조교수로 발탁된 조씨는 다음달부터 학부생과 석사 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정책, 개량경제, 통계학 등 세 과목을 가르칠 예정이다.

조씨의 가족 이야기도 흥미롭다. 지난 98년 교통사고로 작고한 부친 조경근씨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검사와 변호사, 방송 진행자로 나서는 등 활발한 활동을 했고, 김영삼 정부 시절 정부 제1차관을 지냈다. 또 민효씨를 비롯한 민수(32), 민지(30), 민숙(25)씨 등 4자매도 모두 서울대를 졸업했다.

작은 아버지인 조경근, 경효씨도 서울대 의대와 전기공학부를 각각 졸업한 뒤 현재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의대 교수와 사업을 하고 있다. 민효씨의 이모부는 손병두 서강대 총장이다.



‘이달의 보도사진상’에 본사 사진부 위직량 기자

한국사진기자협회(회장 최종욱)가 캐논코리아 컨슈머이미징(주) 후원 아래 선정한 ‘제43회 이달의 보도사진상’에서 광주일보



보 위직량 기자(사진)의 ‘강대표 놔두고 참선중인 이 최고위원’이 제너럴 뉴스(general news) 부문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쫐야’ 개그맨 김주현, 웨딩마치



말아 나란히 결혼식을 이끌었으며, 가수 테이와 개그우먼 김미려가 축가를 불렀다.

SBS ‘웃음을 찾는 사람들’에서 ‘쫐야’와 ‘우리 형’ 코너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개그맨 김주현(24·오른쪽)이 결혼식을 올렸다.

김주현은 13일 오후 1시 서울 마포 힐스테이트인서울 호텔에서 4년간 사귀어온 이유경(22) 씨와 백년가약을 맺었다.

개그우먼 컬투의 정찬우와 김태균이 각각 주례와 사회를 맡아 나란히 결혼식을 이끌었으며, 가수 테이와 개그우먼 김미려가 축가를 불렀다.

‘光銀’ 지역사랑봉사단’ 광주전 정화활동



‘광주은행 지역사랑봉사단’ 단원 900여명은 지난 12일 구간별로 나눠 광주전 정화활동을 벌였다. 총 29개 봉사단으로 구성된 광은 지역사랑봉사단은 27일까지 광주·전남지역에서 환경보호활동 등을 전개한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화측

- ▲김용환(광주시 환경녹지국장) 씨 장남 호현군 최양동씨 장녀 선혜양=18일(금) 오후 7시 에블루션웨딩컨벤션 3층 컨벤션홀.
- ▲구곡서씨 장남 태석군 박행웅(변호사·전 광주지방법원장)씨 장녀 혜진양=19일(토) 오후 5시 서울 힐튼호텔(남산) 그랜드볼룸.

알림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인권상담=월~금 오전9시~오후5시, 국번 없이 1331
- ▲변호사 공재원 법률사무소 토요 무료법률상담=매주 토요일 오전9시~오후1시 사무실 223-2100
- ▲비틀기가정폭력상담소 무료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등

각종 상담. 직접 상담은 전화나 메일로 사전예약 매주 목·금요일. 652-1366, nam939@dreamwiz.com

▲(사)이주가족복지회 긴급지원 및 상담=동남아 결혼이민자나 가족들 대상으로 상담 및 문화강좌. 363-2963, www.ejufamily.com 문화강좌는 월·금 오전 10시~낮 12시, 수 오전 10시~오후 3시(점심 제외)

동창·동문회

- ▲화산초 51회 동창회(회장 박상범) 정기총회=15일(화) 오전 10시 모교 교정.019-9156-5865
- ▲몽탄교 제 33회 정기총회=15일(화) 낮 12시 광산구 장수동 한솔정식당. 956-2877, 011-9435-2553
- ▲광주 효동초교 32회 동창회 월례회=16일(수) 오후 8시 우산동 화니동나눔 삼겹살.523-2550
- ▲순창 금과초 제 41회 동창회(회장 김형우) 모임=19일(토) 오후 5시 강천사 약수장.011-680-6075
- ▲광주상고 12회 동창회(회장 전성수) 모임=19일(토) 낮 12시 담양 추월산 태동산장.018-643-9200

종친회

- ▲전주리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

청년이화회(회장 리진우) 월례회=16일(수) 오후 7시 광주전남도지원회의실.

모집

- ▲광주대 평생교육원 신체 교정 모집=31일까지. 30주 과정 수료 후 자격증 취득. 226-9657
- ▲광주여성인력개발센터 가사도우미 무료훈련생 모집=여성 대상으로 훈련 기간은 9월11일~15일까지.
- ▲금호교육문화회관 제 22기 문화강좌 수강생 모집=어학·교양·음악·컴퓨터·서화·국악 등 39개 강좌 수강생 모집. 접수는 25일까지. 문의 360-6631~6.
- ▲사진회원 모집=사진 촬영에 관심이 있는 자로 매일 첫째 주 일요일 정기 현장 촬영. 010-3638-0289

- ▲등운철학원 역리철학 수강생 모집=매주 3회 6개월 과정. 명리학·풍수지리학·성명학. 376-9396
- ▲한미음장애인지원센터 활동 보조인 모집=북구 운남동 체험실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 2명을 위한 활동보조인 모집. 오전 7시~9시(시간 조정 가능). 문의 431-8025, 010-9881-1276
- ▲회계장식 국비교육생 모집=만 40세이상. 매월 11만원 수당 지급. 문의 (재)연세직업전문학교 264-4300,4305
- ▲장애인 직업훈련생 모집=만 15세 이상 전맹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과정·취업반 특화과정·프로그램 과정 수강생 모집. 교육비 무료. 기숙사 등 편의 제공. 문의 061-320-7051~5
- ▲여성생활체육 자전적 강좌 수강생 모집=여성이면 누구나 가능. 매주 월·화·금 오전 9시부터 상무시민공원 테니스장. 016-9877-0360
- ▲월산동 성당 자원봉사자 모집=독거노인 방문 각종 봉사 활동 참

여자 모집. 월산동 성당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369-7005

▲청수 조기 축구회 회원모집=45~55세 매주 수·금·토·일요일 오전 9시~11시. 문의 017-612-7695

▲한국문화센터서광주지부(원장 정혜영) 회원 모집=홈패션·커피·퀵트·개발한복·손뜨개·꽃꽂이·아동미술·포크아트·가족공예 등. 광주 서구 내방동 구 신학대 사거리 지하철 상층역 4번 출구 375-7178, 011-640-2559

부음

▲이정숙씨 별세 최훈·선미·선영 씨 부친상 문형봉·박성재씨 부부상=발인 15일(화) 그린장례식장 5분 향소.250-4405

넓고 편안한 무등장례식장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구 초전) 대포:(062)515-4488

광주에서 30분 아름다운 청계공원 기적남묘특별분양
 ☎(062)521-1100